



서산, 순천..., 지역 주민들 책 앞에서 활짝 웃은 날

2003년은 '독서운동'이 활발했던 한 해였다. · 오락성을 전면에 내세운 주말 프로그램이 '책'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도서관 건립을 시도하는 한편, 책 관련 기관에서는 책을 주제로 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문화사업이 정부차원을 뛰어넘어 유관단체, 민간차원으로 확장되어 결실을 이룬 과정들을 소개한다.

◎ <한 도시 한 책 읽기> 시범사업 시작

서산 시민들, '암탉' 독서 삼매경에 푹 빠진 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고 서산시립도서관이 주최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시범사업이 11월 초 서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기초조사, 사업지역 선정 등 준비기간을 가졌던 한국도서관협회 측은 10월에 황선미 씨의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을 대상도서로 발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매년 한 사람의 작품을 선정, 그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운동은 5년 전 미국 시애틀시의 낸시 펠이라는 도서관 사서가 기획한 사업. 1998년 이후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를 포함해 미국 내 98개 지역으로 퍼져나간 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한 책, 한 시카고 One Book, One Chicago'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산에서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12월 13일까지 서산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제공 서산시립도서관

지역단위 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도서관협회 이용훈 부장

- 1. 이번 사업이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나?
8월 말부터 서산시에 새로운 독서운동, 지역 문화운동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했다. 이번 사업의 성과를 꼼꼼히 되짚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독서운동 또는 지역 문화운동 등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2.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였는가?
행정자치부의 지원금 2,000만 원과 협회 자체 자금, 서산시와 서산시립도서관 예산 등이 투입되었다. 이런 산술적인 예산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산시민, 서산시와 시의회, 대도시의 출판사인 사계절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 3. 서산 시민들의 독서율과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어떤 편이었나?
독서회에 참여하는 시민, '동화읽는어른' 회원들, 학교 교사들을 주로 만났다. 모두들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을 매우 즐거워했는데 이들은 책을 선물하지는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운동은 이처럼 시민들의 적극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4.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외국의 경험을 짧은 시간 안에 현실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서산시에 자주 가보질 못해서 서산시와 시립도서관에 죄송한 점도 많았는데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는 만큼 서산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전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을 시도하길 바란다.



● 순천 '기적의 도서관' 내부는 아이들을 배려해 최대한 안락한 공간으로 꾸몄다. 사진제공 순천시청·아트링크

◎ 기적의 도서관 1호, 순천에 세워지다

순천 시민부터 전 국민까지, '기적의 도서관'에 몰려가던 날

'기적의 도서관' 제1호가 11월 10일 전남 순천에 문을 열었다. 문화방송 프로그램인 '느낌표' 제작진의 제안으로 시작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지난 2월 부지를 순천으로 정한 후 약 20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만들어주자"는 뜻으로 시작한 사업은 시민단체, 중소기업 등 민간차원의 후원을 받은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모인 후원자 중에는 찜뎀돈을 털어 온 사람부터 수천만 원을 낸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장애인 전용 책상을 기증하겠다는 회사 등 40여 곳에 이르는 기업체가 후원했다. 이렇게 모인 돈만 1억1,200만 원. 이를 토대로 세워진 도서관은 "영유아까지 출입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 2호 도서관이 충북 제천에 건립될 예정이다. **추천** 취재 김청연 기자

돈 없어 책 못 읽는다는 어린이 없기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서해성 사무처장

1. 꽤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걸로 안다. 소감을 말해달라.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시민운동'의 본 뜻을 생각하며 일했다. 지식평등을 위해 시민사회가 먼저 첫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

2. 기적의 도서관만이 갖는 특화된 성격은 무엇인가?

첫째로 시민사회가 만들었다는 것, 둘째는 본격적으로는 어린이 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도서관 건립에 힘썼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갖는다. 셋째는 공간보다는 프로그램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적의 도서관'에는 36개월이 안 된 아기도 출입할 수 있다. 우리는 그곳을 사용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공간을 구성했다. 이야기방, 영유아실 등 공간적 배열에 최대한 신경을 썼고 전기시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서 아이들이 물, 공기, 바람 등 자연을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게 했다.

3. 순천 시민들의 관심도는 어떤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남겼나?

개관식 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왔다. 그만큼 사람들이 도서관에 목말라 했고,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도서관이 부족했다는 걸 반증한다. 진정으로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한다. 이 일을 하면서 지식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는데 앞으로는 돈 없어서 책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도서관 건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